

광주FC '新 거미손' 노희동 존재감 빛났다



6월 K리그1 데뷔 후 코리아컵까지 '만점 활약'
수원FC전 10개 유효슈팅 막아낸 '선방쇼' 백미

2025년이었다.

광주FC는 2월 11일 산동 타이산(중국)과의 A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로 시즌을 연 뒤 12월 6일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을 끝으로 올 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길고 길었던 시즌이었지만 노희동은 "길고도 짧았다"며 한 해를 돌아봤다.

노희동은 지난 6월 1일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 서 교체 멤버로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K리그1 데뷔 전을 치렀다.

노희동은 K리그3 김해시청을 거쳐 2022년 광주 유니폼을 입은 첫 해 1경기에 출장했지만 당시 팀은 K리그2에 있었다. 광주가 K리그1으로 돌아온 2023년 그리고 지난해에는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구 원정서 주전 골키퍼 김경민이 에드 가와의 충돌로 경기 중반 교체되면서 노희동이 투입됐다. 노희동은 이후 김경민이 안와골절 부상에서 회복할 때까지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 광주 골대를 지키기도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회를 준비했던 노희동은 멋진 피날레를 장식했다.

노희동은 시즌 최종전이었던 수원FC와의 원정

어느 해보다 길었던 시즌
이었지만 광주FC 골키퍼 노
희동에게는 짧고 강렬한

경기에서 '선방쇼'를 펼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승리가 간절했던 수원FC는 18차례 광주의 골대를 두드렸고, 이 중 10개의 유효슈팅도 기록했지만 노희동을 뛰지 못했다. 광주는 노희동의 활약으로 최종전을 1-0승리로 장식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노희동은 통곡의 벽이었다. 노희동은 올 시즌 코리아컵 3경기에도 출전했다.

5월 14일 수원FC와의 8강전 승리에도 노희동이 있었다. 이날 두 팀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승부에서 골을 만들지 못한 두 팀은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는 피 말리는 혈투를 벌여야 했다.

노희동은 긴박한 승부차기에서 침착하게 두 개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광주의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코리아컵 마지막 순간에도 노희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0-1로 뒤진 후반 5분 김경민이 부상으로 실려 나오면서 노희동이 급히 장갑을 켰다.

우승컵을 놓고 전개된 치열한 승부, 2만9410명이 입장하면서 관중석 분위기도 뜨거웠다. 하지만 노희동은 침착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를 풀어갔다.

노희동이 전북 공격을 잘 막아내자 기다렸던 동점골이 나왔고,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

결과는 아쉬운 1-2패였지만 노희동은 코리아컵

준우승의 주역이었다.

상상하던 순간들을 보낸 만큼 노희동에게는 끝난 게 아쉬운 2025시즌이었다.

노희동은 "올 시즌 많이 즐거웠다.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다. 준비를 잘해서 마지막에 좋은 기회들이 찾아온 것 같다"며 "나는 올 시즌이 짧다고 생각한다. 올해가 제일 빨리 끝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코리아컵 결승전은 잊지 못할 경기로 남을 전망이다.

노희동은 "꿈꾸었던 순간이었다. 많은 팬들 앞에서 뛰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기회가 찾아와서 '즐겨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며 "뒤에서 잘 준비하고 있어서 경기 템포에 빨린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간절했던 동료들의 질주를 보면서 '원팀'의 힘도 확인했다.

노희동은 "우리팀 형들 정말 열심히 뛴다. 뒤에 있는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게 된다. 뒤에 있는 선수들도 다 열심히 준비했고, 경기를 보면서 밖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감독님, 코칭스태프, 선수들, 팬들 한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잘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25시즌의 강렬했던 순간은 노희동의 2026시즌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휴식이 우선인 것 같다"며 웃은 노희동은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마냥 잘했다고만 할 수 없다. 잘한 것도 생각하겠지만 실수했던 부분도 되뇌이면서 보완하려고 한다"고 경험을 통한 성장을 짐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골키퍼 노희동이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에서 수비진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토트넘, 손을 잊지 말아요



전 토트넘 선수이자 주장 손흥민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와 슬라비아 프라하 간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시작 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LAFC 이적 후 4개월 만에 홈 팬들과 재회…10년 활동 마치고 작별 인사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10년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레전드'로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손세 이셔널' 손흥민(33·LAFC)이 흠 팬들 앞에서 뜨거운 안방'을 와쳤다.

손흥민은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슬라비아 프라하와(체코)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6차전 킥오프를 앞두고 팬들 앞에 섰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치러진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이적을 발표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가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겠다"고 약속했고, 4개월여 만에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해 팬들 앞에서 섰다.

토트넘은 10년 동안 활약하며 주장을 맡아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손흥민의 업적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토트넘 하이 로드에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 장면과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벽화를 선물로 마련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자신의 벽화가 담긴 건물을 방문한 손흥민은 "특별한 기분이다. 벽화의 주인공이 돼 감사할 따름이다. 좋은 선수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도 남고 싶다. 잊을 수 없는 10년을 팬들과 함께 보낸 것이 감사한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2015년 8월 입단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공식전 454경기를 뛰며 173골을 터트려 클럽 역대 최다득점 5위에 랭크된 '레전드'다.

2021-2022시즌 EPL에서 23골을 터뜨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지난 5월엔 토트넘의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갑작스러운 LAFC 이적 탓에 10년 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흠 팬들과 '작별 의식'을 갖지 못한 손흥민은 LAFC의 경기 일정이 모두

끝나면서 토트넘을 직접 찾을 수 있었다.

이날 경기장을 가득채운 흠 팬들은 모두 일어서서 '영웅의 귀환'을 기다렸고,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기립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마이크를 들고 팬들 앞에서 손흥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손흥민)가 여기에 왔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하자, 관중석은 또다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들썩였다.

손흥민은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10년 동안의 세월이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저는 언제나 토트넘의 일원이 되고 싶다.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언제나 저에게 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언제든 LA를 방문해달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팬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의 작별 인사는 끝나자 토트넘의 '레전드 수비수' 레슬리 킹이 그리운드로 나와 토트넘의 상징인 수탉 모양의 트로피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엄지성, 양민혁과 '코리안 더비' 판정승

스완지시티, 챔피언십 20R 1-0 승…연승으로 18위 도약

국가대표 공격수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에서 이뤄진 '대표팀 후辈' 양민혁(포츠머스)과의 '코리안 더비'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스완지시티는 10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스완지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츠머스와의 2025-2026 챔피언십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을 달린 스완지시티(승점 23)를 쌓아 18위로 올라선 가운데 포츠머스(승점 17)는 3연패에 빠지며 강등권인 22위에 그쳤다.

이날 경기는 엄지성과 양민혁의 코리안 더비로 눈길을 끌었다.

엄지성은 스완지시티의 왼쪽 날개로, 양민혁 역시 포츠머스의 오른쪽 날개로 각각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둘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엄지성은 후반 27분 교체될 때까지 한 차례 유효シュ팅만 기록했고, 양민혁은 후반 25분 교체돼 나갈 때까지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소파스코이는 엄지성에게 평점 6.6을, 양민혁에게 평점 6.7을 줬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33분 리암 컬린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백승호(28)가 폴타임을 소화한 챔피언십 베랑엄시티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의 원정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장골을



엄지성



양민혁

허용하며 1-2로 져 2연패를 당했다.

버밍엄(승점 28)은 10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4-2-3-1 전술로 나선 버밍엄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백승호는 90분 폴타임을 소화하면서 후반 35분 거친 파울로 옐로카드를 받으며 분전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전반 40분 먼저 실점한 버밍엄은 후반 추가시간 3분 패트릭 로버츠의 동점골이 터지며 패배를 벗어나는 듯했지만 후반 추가시간 6분 통한의 결승골을 내주고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